

#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Self-esteem as related to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홍성흔  
부교수 도현심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Hong, Seong Heun

Associate Professor : Doh, Hyun S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of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self-esteem to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The mediating role of adolescents' self-esteem was also explored in the relations between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s and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84 2nd-grade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D city.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adolescents who experienced higher maternal warmth showed higher achievement motivation, while those who experienced higher maternal rejection/restriction showed lower achievement motivation. Adolescents who experienced higher open family communication reported higher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ose who experienced higher problem in family communication reported lower achievement motivation. The higher self-esteem was, the higher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was.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ed in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rejection/restriction and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and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주제어(Key Words):** 어머니의 양육행동(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모-자녀간 의사소통(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청소년의 성취동기(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Corresponding Author: Hyun-Sim Doh,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82-2-3277-3104, Fax:82-2-3277-3104 E-mail:goodparents@hanmail.net

## I. 서론

인간의 모든 행동의 내적 요인이 되는 동기 중 성취동기는 개인은 물론 나아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심리특성으로서, 개인의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학업의 달성과 직장에서의 성공여부를 비롯한 그 사회의 번영과 경제적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동기가 부족하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반면에 능력이 크게 미치지지는 못할지라도 성취동기가 높고 고취되어 있는 사람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결국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더욱이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적 성패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성취동기야말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성취동기란 어떤 훌륭한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적 의욕 또는 내적 성향(이성진, 1975)을 말한다. 또한,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가능한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Murray, 1938)를 의미한다. 성취동기는 개인에게 있어 자신은 물론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행동이나 기술, 사고 등을 학습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적 성장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아동의 여러 발달적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취동기는 부모-자녀관계와의 관련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도 특히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리라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크게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성취동기를 고양시키는 양육행동의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온정적인 태도가 자녀의 높은 성취동기와 상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취동기가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성취동기가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에 비해 제한보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자

녀의 업적에 더 긍정적이며 보상방법으로는 물질적, 언어적인 것보다는 포옹이나 입맞춤과 같은 신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Winterbottom, 1953).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예: 애정적·자율적·합리적·성취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성취동기도 높게 나타났다(김주년, 1994). 이와는 달리 아이들에게 거부와 제재를 강조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서는 낮은 성취동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상급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 양육행동이 거부적인 경우 남녀 모두 성취동기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김경연, 1979), Lynn(197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제한적이고 통제를 많이 가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취동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의 조바심이 높으면 아이의 성취동기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신현배, 1974)는 부모의 잔소리나 자유 구속, 그리고 강박적 규제 등은 자녀의 성취동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허용/방임과 성취동기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양육행동에 따른 발달 및 적응을 다룬 연구에서, 방임형 가족의 경우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익애적(indulgent) 가정의 청소년들은 긍정적 적응과 부정적 적응을 혼합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orn, Mounts, Sternberg & Dornbusch, 1991). 또한, Steinberg와 동료들(1994)은 방임형 양육의 해로움이 문화나 생태적 환경을 초월하여 공통적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성취동기간의 관계에 대해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과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 in family communication)으로 구분된다. 개방적 의사소통이란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며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 해결기술을 지닌 의사소통 유형이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빈약한 문제 해결기술을 지닌 의사소통 유

형이다(민하영, 1991).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성취동기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몇몇 연구에서 양자간의 밀접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성취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의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부모-자녀간에 있어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일방향적 의사소통 형태보다 효과적이며, 자녀 중심적이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가정에서의 청소년은 부모 중심적이고 일방향적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 폐쇄적 가정에 비해 보다 높은 성취동기를 지녔다(박성주, 1986). 또한 부모의 언어 형태를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로 분류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긍정어나 부정어 모두 아동의 인지 발달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성발달에 있어 부모의 긍정적인 언어사용은 높은 성취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박화영, 1972). 반면에, 성취동기를 저하시키는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도 아동의 성취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경순, 정현희, 1998).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타당한 근거를 아동에게 제시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와 지위에 입각해서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아동의 성취동기는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와 10대 청소년간 의사소통의 부족은 청소년기 동안의 가장 커다란 갈등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부모가 아동기부터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으로 양육을 하거나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격려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기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Albrecht, 1972). 더구나,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어렵고 세대간의 의견차이가 생기게 되어 청소년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성취동기는 다른 양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근거해 볼 때, 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서 자신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 자체보다는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그의 동기 수준이 달라지므로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 내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낮은 성취동기를 갖기 쉽다(정원식, 2001). Harter(1983)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은 성공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고 더욱 끈기 있고 꾸준히 공부하여 학업성취도 높고 보다 도전적인 과제나 문제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긍정적인 행위를 수행하도록 동기가 유발되며(Aronson & Mettee, 1968),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부정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가 유발된다(김애리나, 1980; Sigall & Gould, 1977).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인 관계를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 발달의 기반이 되며 능력에 대한 신념과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 형성에 있어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George & Meriem, 1979). 따라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성취동기가 높아지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성취동기가 낮아진다(조영란, 199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간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전달되어지는 타인, 특히 중요한 타인들의 반영적 평가와 자기 행동효과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발달되며(박영애, 1995; Rosenberg, 1979), 이의 주요 근원이 가족이라고 볼 때 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즉, 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성취동기 형성에 있어 필수요건으로서, 동시에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수용, 관심, 지지, 참여, 친밀성, 애정 또는 온정성 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이나 높은 자아존중감과 결부되어 있다(Kawash, Kerr & Clewes, 1985).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수용하며 존중해 주는 태도가 자녀의 자

자존중감 발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Mote, 1967). 반면, 부모의 구속적, 거부적 행동, 무관심, 비난, 억압, 위협 등은 낮은 또는 허약한 자아존중감과 결부되어 있다(Openshaw, 1983). 또한 심리적 통제(Kawash et al, 1985)나 권위주의적 통제 또는 보호, 외적 처벌, 특권의 박탈, 감정적인 처벌(Halpin & Whiddon, 1980)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을 이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부모의 수용 및 인정, 애정과 달리 거부, 수용이나 따뜻함, 사랑이 없는 극단적 제재는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옴을 의미한다(박영애, 1995; 정원식, 2001). 반면에, 허용/방임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불일치도가 높은 편이다. 부모의 허용성과 느슨한 훈육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Kawash et al, 1985)와 허용성 점수가 자아정체감 및 학업성취와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보고(Steinberg, 1989)는 허용성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다. 이와 달리, 허용성이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을 보인 연구결과(Young, 1993)도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Felson & Zielinski, 1989),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이경주, 신효식, 1990)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 부모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주게 되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각하였으며(박은민, 2001), 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폐쇄적, 부정적이라고 여길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부정적이었다는 보고(권혜진, 윤종희, 1993)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모-자녀관계는 자아존중감의 선행요인이며(이경주, 신효식, 1990; Kawash et al, 1985),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의 선행요인이 된다(김애리나, 1980; Harter, 1983; George & Meriem, 1979).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의 성취동기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 초기로 접어들면서 청소년은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아동기와는 달리, 자신의 내적인 평가에 더 가치를 두는 청소년이 모-자녀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지각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고려해 본다면, 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기간에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지각한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이 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기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자아존중감은 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기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의 거주 환경이 비슷한 2개 구에 위치한 중학교 10학급의 2학년에 재학중인 284

명의 남녀 청소년(남: 138, 여: 146명)이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23명(8.1%), 첫째가 100명(35.2%), 둘째가 121명(42.7%), 셋째 이상은 34명(12.0%)이었으며, 가족 구조는 전체의 92.1%가 핵가족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는 만 13-14세이며, 평균 연령은 13.19세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은 21.5%이었다. 어머니의 경우도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50.7%)를 나타냈으며, 대졸은 그 다음 순이었다(17.3%).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자영업(30.3%)과 회사원 및 교사(20.1%)가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전체의 53.5%이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그리고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질문지로서 모든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이다.

### 1) 성취동기 척도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Hermans(1970)의 성취동기검사(Prestatie Motivatie Test)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 의해 측정되는 성취동기의 요인은 포부수준, 모험적 행동, 지위상승, 인내, 과업긴장, 시간지각, 시간전망, 동료선택, 인정을 위한 행동, 성취행동 등의 10가지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요인의 신뢰도 수치가  $\alpha = .61$ 이하로 너무 낮게 산출되어 모든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중요한 일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만약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일을 잘못했다면,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큰 책임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등이 포함되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개인이 가진

전반적인 성취동기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적 자기보고 방식에 의한 검사로서, 원래 4점 혹은 5점 Likert식 척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기 위해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성연과 이숙(1990)의 질문지를 기초로 한 도현심과 최미경(1998)의 양육행동 척도에서 '온정성' 요인 중 7문항과 '거부/제재' 요인 중 9문항, 그리고 '허용/방임' 요인 중 9문항과,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양육행동 척도 가운데 '권위주의적 통제' 요인 중 4문항을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9개의 문항들에 대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은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감정적 혼욕,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 등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부/제재'로 명명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내실 때가 많다',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게 하신다', '내가 억울하다고 불평이나 항의를 하려고 하면, 일단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 등이 포함된다. 제 2요인은 '온정성'으로서 자녀를 승인해 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시하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고자 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에게 다정스럽게 대하신다',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나의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제 3요인은 '허용/방임'으로 명명하였으며,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굴복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거의 뭐든지 다 하게 해주신다', '내가 할 것을 안하고 단 짓을 하고 있어도 야단치지 않는

다', '하면 안 되는 일도 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두신다' 등이 포함된다.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거부/제재요인에서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세 문항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거부/제재 12문항, 온정성 5문항, 허용/방임 9문항의 세 요인으로 구분되는 총 26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거부/제재가 .85, 온정성이 .78, 그리고 허용/방임이 .61이었다.

### 3) 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척도를 민하영(1991)이 번안한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 각각 10문항을 포함하는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하위요인은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 요인으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와 의논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또 다른 하위요인은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 in family communication)' 요인으로 '때때로 어머니의 말씀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어머니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즉, 가족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개방적 의사소통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이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다. Cronbach's  $\alpha$ 에 의해 산출된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 각각 .90과 .72이었다.

###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한 박성연과 도현심(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용으로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인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내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낀다'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박선영, 1997).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9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2년 3월과 4월에 걸쳐 조사되었다.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각 학급의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주 후 재방문하여 회수하였다. 2개 학교의 10학급(학교별 5학급씩)에 배부된 총 321부의 질문지 가운데 304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9.4%), 이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20부)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284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간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

〈표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상관관계 (N=284)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온정성	.45***
거부/제재	-.29***
허용/방임	.00

\*\*\* p<.001

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양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온정성( $r=.45, p<.001$ )과 거부/제재( $r=-.29, p<.001$ )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높고, 어머니가 거부/제재적일수록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허용/방임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1).

2)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개방적 의사소통( $r=.52, p<.001$ )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r=-.31, p<.001$ ) 모두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2).

2.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상관관계를

〈표 2〉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상관관계 (N=284)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개방적 의사소통	.52***
역기능적 의사소통	-.31***

\*\*\* p<.001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r=.60, p<.001$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동기는 높게 나타났다.

3.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모-자녀관계의 각 요인들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어머니의 온정성 및 거부/제재, 개방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이러한 다섯 가지 변인들 가운데 자아존중감( $\beta=.53, p<.001$ )과 개방적 의사소통( $\beta=.26, p<.001$ )만이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온정성 및 거부/제재와 같은 양육행동 요인들, 개방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성취동기가 높았다.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대한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50%에 해당하였다.

〈표 3〉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대한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중다 회귀분석 (N=284)

독립변인	B	$\beta$
온정성	.03	.06
거부/제재	-.03	-.04
개방적 의사소통	.16	.26***
역기능적 의사소통	.05	.06
자아존중감	.39	.53***
$R^2$	.50	
F	38.83***	

\*\*\* p<.001

#### 4. 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이 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는 네 가지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 중 온정성과 거부/제재, 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인 중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등의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 및 종속변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세 가지 단계에 의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관계를 단순 회귀분석 결과

를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위의 네 경우 중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나타내었다. 즉,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어머니의 거부/제재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 어머니의 거부/제재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보다 감소되었다( $\beta = -.29$ ,  $p < .001$ 에서  $\beta = -.10$ ,  $p < .05$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거부/제재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와 자아존중감의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44%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35%이었다(표 4).

다음으로,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의 43%를 설명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33%이었다(표 5).

〈표 4〉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제재와 자아존중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N=284)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B	$\beta$	B	$\beta$
거부/제재	-.22	-.29***	-.08	-.10*
자아존중감			.46	.62***
R <sup>2</sup>	.09		.44	
F	22.13***		91.90***	

\*  $p < .05$ , \*\*\*  $p < .001$

〈표 5〉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N=284)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B	$\beta$	B	$\beta$
역기능적 의사소통	-.25	-.31***	-.05	-.07
자아존중감			.47	.63***
R <sup>2</sup>	.10		.43	
F	24.89***		89.82***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 중 온정성과 거부/제재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높고, 어머니가 거부/제재 적일수록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낮았다. 어머니의 온정성은 거부/제재에 비해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성취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Sutton-Smith, 1973)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온정성이 거부/제재에 비해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것은 자녀의 적응에 있어 부모의 온정성이 비중 있고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Anne, 1984; Winterbottom, 1953)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승인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시하는 등의 온정성이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인다는 기존 연구결과(Winterbottom, 1953)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평소 자녀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성취에도 상이나 칭찬을 주고, 자녀가 좌절을 견뎌내도록 끊임 없이 격려해 줄 때 자녀는 지속적으로 성취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매사에 좀더 잘해보고자 동기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거부/제재와 자녀의 낮은 성취동기간의 유의한 관계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들(김경연, 1979; Lynn, 1974)과 일치한다. 자녀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 등의 행동은 청소년기의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해 반항심을 갖게 하고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반항심과 열등감은 청소년이 자신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허용/방임과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자녀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고, 무책임하며 무관심한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

는 방임형 양육이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 Dornbusch, 1994)나 허용성 점수가 학업 성취를 높인다는 보고(Steinberg, 1989)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한 척도의 내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존 연구들에 있어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은 거부/제재와 같은 맥락에서 통제의 부재 또는 강화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허용/방임의 척도는 양육행동에 있어 일정한 방향이나 규칙이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간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 '하라고 했던 일도 내가 싫다고 하면 끝까지 시키지는 않으신다' 등의 내용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온정성과 거부/제재 요인은 양육행동에 있어 어머니 나름대로의 일정 규칙이 있는 반면, 허용/방임은 그러한 규칙조차 없이 비일관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대해 온정성과 거부/제재와 달리 허용/방임은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어머니의 온정성은 청소년의 높은 성취동기와, 거부/제재는 청소년의 낮은 성취동기와 관계가 있으며, 양육행동에 있어 일정한 규칙이 없는 허용/방임은 성취동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두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가정의 청소년이 의사전달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성취를 지닌다는 연구결과(박성주, 1986)와 부모의 긍정적인 언어사용은 자녀의 성취 욕구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박화엽, 1972)를 지지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한 촉진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인성 및 적응적 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마정진, 1988)

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과 폐쇄성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단순한 언어적 교환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등의 태도요인이다. 따라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지지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느껴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성취동기도 증가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마련해 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하고 지지해 준다면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증진되고 청소년의 성취동기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는 자신들의 문제에 심취해 어머니와의 대화 단절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를 요약해 보면, 양육행동의 온정성, 개방적 의사소통과 같이 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청소년은 높은 성취동기를 갖게 되는 반면, 어머니의 거부/제재,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같이 모-자녀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 때 청소년은 낮은 성취동기를 갖게 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동기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긍정적인 행위를 수행하도록 동기가 유발된다는 연구결과(Aronson & Mettee, 1968)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부정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가 유발된다는 결과(김애리나, 1980; Sigall & Gould, 1977)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취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정원식, 2001)와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성취동기가 높아지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성취동기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조영란, 1994)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높은 경향이 있어 성취에 대한 확신이 크고, 좌절을 할지라도 크게 낙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게 되어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취동기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과거에 필요로 했던 만족감을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과거에 필요로 했던 만족감을 획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각한 자기 부적절감 또는 무력감 등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Korman, 1967). 따라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성취동기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낮은 성취결과를 이루게 되면 다시 낮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 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넷째,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과 모-자녀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 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거부/제재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게서 거부/제재적 양육을 받은 청소년은 낮은 성취동기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게 되어 결국 성취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지각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와 같이 모-자녀관계의 변인들 가운데 온정성과 개방적 의사소통과 같은 긍정적 차원과 달리 거부/제재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같은 부정

적인 차원만이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된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모-자녀관계는 그 자체로서 청소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모-자녀관계를 경험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기 쉬우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모-자녀간의 부정적 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상관관계 결과에서 보았듯이,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던 결과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녀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면, 모-자녀관계 요인에 영향을 받아 궁극적으로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지각이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동기에 이러한 개인 내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온정성 및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의 발달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의 발달에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거부/제재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 등의 다양한 변인을 통해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나아가 모-자녀관계 중 어머니의 거부/제재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해 후속 연구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변화되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관계를 청소년 자신의 보고만을 이용하였다. 동일한 보고자의 주관적 관점을 통해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한 응답자의 시각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변수들간 상관을 실제보다 높아지게 하는 자동상관(auto-correlations) 또는 가상상관(spurious correlations)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박영애, 1995; Felson & Zielinski, 1989).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자녀관계에 관한 측정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나 제 3자도 포함한 연구를 통해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만을 다루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낙관적 성격과 같은 긍정적 요인이나 외로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요인 등도 다루어 성취동기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 내적 요인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권혜진, 윤종희(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일 연구. *이동학회지*, 14(1), 167-178.
- 김경연(1979).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리나(1980).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성취기대와 지속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년(1994).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성취동기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동학회지*, 19(2), 19-33.
- 마정전(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 인성 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1997). 가족기능 및 인성특성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성연, 도현심(2001). 조선족의 민족정체성과 청소년의 적응. 한민족의 공동체 시각에서 본 연변조선족의 현실 심포지움, 37-51.
- 박성연, 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성주(1986). 한국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박은민(2001). 대학생활 적응과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엽(1972). 부모의 언어가 아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배(197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성취기대도가 첫 아이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 신호식(1990).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학정관리학회지*, 8(2), 1-13.
- 이성진(1975).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정원식(2001). *인간의 동기*. 서울: 교육과학사.
- 조영란(1994).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경순, 정현희(1998).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성취동기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인간 발달연구*, 5(2), 149-163.
- Albrecht, M. (1972). Parents and teenagers: Getting through to each other. In Tommie, J. H., & Pauline, H. T.(1995).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2nd ed.): The change nature of parenting: Later life, Prentice Hall.
- Anne, C. G. (1984). Father-daughter interaction, sex-role identity, achievement motivation and parental identification in colleg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Aronson, E., & Mettee, D.(1968). Dishonest behavior as a function of differential levels of induce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121-127.
- Baron, R., &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05-715.
- Felson, R. B., & Zielinski, M. A.(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George Kaluger & Meriem F. Kaluger.(1979). *Human Development: The span of life*. Saint Louis: Mosby.
- Halpin, G., & Whiddon, T.(1980).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to locus of and self-esteem among American Indian and White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111, 189-195.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ermans, H. J.(1970). A questionnaire measure of

-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4(4), 353-363.
- Kawash, G. F., Kerr, E. N., & Clewes, J. L.(1985). Self-esteem, in children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ology*, 6, 536.
- Korman, A. K. (1967). Toward an hypothesis of work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4, 31-41.
- Lamborn, S. D., Mounts, N. S., Ster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u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ynn, D. B.(1974). *The Father; His role in child development*. Monterey, California; Brooks, Publishing Co.
- Mote, F, B.(196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self-concept in school and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 in rearing. *Dissertation Abstracts*, 27, 3319.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penshaw, D Kim(1983).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Symbolic Interaction and Social Learning Explanations. *Adolescence*, 18(70), 317-329.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igall, H., & Gould, R.(1977).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evaluator demandingness on effort expenditur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5, 12-20.
- Steinberg, L(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6), 1424-1436.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 Sutton-Smith, B.(1973). *Child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 Winterbottom, M.(1953). The relation of need for achievement in learning experiences to independence and mastery. In J. W. Atkinson(ed.).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New York: Van Nostrand Co.
- Young, M. H.(1993).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 Ann Arbor MI: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2002년 7월 31일 접수, 2002년 12월 5일 채택)